



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왼쪽)과 현도정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널 대표.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아이스더비, 경륜사업 해외진출 업무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3일 아이스더비 인터내셔널(이하 아이스더비)과 경륜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공단의 경륜운영 노하우와 아이스더비의 해외 네트워크 역량을 통해 경륜사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아이스더비측은 경륜경주를 해외 합법 베이스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 경륜투어' 사업을 주관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주의 해외출장을 위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수교육, 양성, 등록, 경주심판 판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 수익금은 한국 경륜발전과 아마추어 선수 육성, 사이클산업 육성 및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경륜사업을 세계 합법 베이스시장으로 확대해 온라인 베이스 시장에 적합한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사설경주 근절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불법 사설경주 근절을 위한 '2022년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온라인 모니터링단과 오프라인 모니터링단으로 나뉜다.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경륜경정 불법 사이트나 홍보글 색출 등을 통한 채증 활동을 한다. 불법도박 감시활동 모니터링단은 불법도박 현장 감시 및 단속, 정보수집 등을 하게 된다. 불법도박 근절에 관심이 높거나 인터넷 정보검색 능력 우수, 유사업무 근무 경험, 교육과 업무협약에 참여가능, 해당 업무에 관심 높은 2030세대, 유사단체 유경험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경륜경정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cyber112@kspo.or.kr)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 지역 경륜팀 동계훈련 점검

도로훈련 60km 이상 ↑ ...강도 높인 수성팀

김포팀, 팀스프린트·인터벌 집중  
동서울, 오미크론 확진세에 주춤  
청평팀, 실전 감각 높이는 데 초점

긴 시즌을 소화하는 프로 스포츠에서 동계훈련은 흔히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동계훈련 기간에는 훈련여건이 좋은 지역을 찾아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한다. 이때 타 팀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새로운 인맥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승패에 연대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경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요 지역 팀의 동계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경륜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도 높은 도로훈련을 하고 있다. 최강자 임채민의 가세와 함께 최근 2년간 겨울 동안 일한 훈련을 실시한 수성팀이 시즌초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경륜에서의 동계훈련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성팀

훈련부장 김민준을 중심으로 가장 빠른 12월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광명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팀원 대부분이 참가했다. 20~30km에 불과하던 도로 훈련을 60km 이상 늘렸고 여기에 고갯길을 추가해 강도까지 높였다. 또 차량 유도를 통해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회전 훈련을 병행, 실전 적응력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최근 벨로드롬에서 연이은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노장인 이수원은 국가대표 선수(감독 조호성)들의 산정 전지훈련에 동행하며 100~200km 달하는 장거리 훈련을 소화해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되고 있다.

●김포팀

1월초 정종진의 공백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으나 김형완(훈련부장)과 지부장인 엄정일이 팀을 이끌었다. 정정교, 공태민, 한탁희, 엄정일, 김민준 등 경기 북부권 선수들을 불러 모아 합숙 훈련에 돌입했다. 수성팀과 스케줄이 많이 겹쳐 동반훈련까지 자연스레 이뤄졌다. 특히 실전에 대비해 팀스프린트 훈련과 인터벌 훈련에 집중했다. 말형격인 노장 황승호와 유태복을 비롯해 24기, 25기, 26기 등 신진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조화를 이룬 점도 눈길을 끈다. 과거보다 훈련 양

이 적고 다소 산만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리더 정종진의 공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팀원들의 노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다.

●동서울팀

최근 2년 젊은 피 수혈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27기 신인이 대거(4명) 참여했다. 신은섭과 정해민이 중심이 돼 순간 파워를 높이기 위해 웨이트 비중을 두고 훈련했다. 광명 경기장이 휴기에 주행훈련만큼은 평소에도 꾸준했다. 다만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거의 전 선수가 확진과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쳤

다.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지만 전원 건강 상 문제없고 이후 다시 강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2주전 전원이 시즌 첫 특선 결승 우승을 차지했고 정해민의 하반기 슈퍼특선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청평팀

지난해 가을까지 장거리 도로 중심의 훈련에 치중했으나, 겨울부터 광명, 가평, 춘천을 오가며 훈련의 변화를 꾀했다. 김시후, 김법준, 손재우, 이상현, 강진원 등이 중심이 돼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팀 내 합동주, 합명주 등은 김포팀과 자주 어울리며 훈련을 했고 최근영은 동서울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주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강경륜'의 박창현 대표는 "이들 네 팀 외에 세종, 북광주, 금정팀 등은 전년도 공백이 없었던 데다 동계훈련도 나름 알차게 소화한 반면 오랜 공백 후 지난 해 말이나 올 초 복귀한 선수들은 당장 실전 준비에도 시간이 모자라 이 훈련 격차가 좀처럼 빨리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 공백 선수들은 당장 마크나 투입 정도는 편성과 전개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한창때의 기량이나 호흡한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정 분석 필수 요소... '틸트각'을 아시나요?

각도 따라 직선 활주·선회력 달라져

경정은 모터와 보트 그리고 선수가 하나가 돼 레이스를 치르기 위해 경주를 예측할 때 고려할 요소가 여러가지다. 선수는 스타트 능력과 조종술을 평가하고, 모터는 착순점과 소개항주 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 경정 홈페이지와 스피드온 앱 그리고 경정 예상지를 통해서 선수와 모터보트 등 기본적인 출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 공개된 여러 정보 중 하나로 '틸트각'이 있다. 모터를 보트에 장착하는 각도(프로펠러 축과 보트 접수면과의 각도)를 틸트각이라

고 한다. 소개항주 시 미사리 본장의 전광판과 모니터에는 출전하는 선수 소개와 함께 틸트각을 공개한다. 모터를 보트에 올려놓는데 있어 단순히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 개념이 아니다. 출전을 앞두고 수면 상태와 배정받은 코스, 모터의 특성을 파악 후 장차 각도를 조절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세한 각도의 차이로 직선 활주 시 추진력과 선회 파워가 달라져 꼭 파악해야 하는 정보다. 경정 모터는 보트 후미에 직각으로 장착된다. 일반 레저용 선회기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어 항주 중에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나

경주용 모터는 경량화와 고장 방지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 했다. 경주 출주 전에 사용 각도를 신고하고 고정해 수면에 나신다. 선수들은 모터 특성에 따라 -0.5도, 0도, +0.5도, +1.0도, +1.5도 등 5단계로 변경한다. 틸트각이 '+'가 되면 보트 후미를 수면 아래로 누르는 힘이 커지고 이에 따라 보트의 앞부분이 들리게 된다. 보트 바닥이 수면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마찰력이 감소해 직선 경정 시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 반대로 틸트각이 '-'면 보트 앞부분이 내려가 보트와 수면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마찰력이 증가한다. 활주 시 속도가 줄어들 수 있으나 선회 시 보트를 제어하는 안정감은 좋아진다. 선수가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정비 중의 하나가 틸트각 조절이다. 물론 틸트

각만 바꾼다고 모터의 성능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공합이 맞아떨어질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프로펠러 이고 이밖에 기어 간극, 연료량 조절 등이 있다. 프로펠러를 교체하거나 모터에 정비를 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틸트각 만큼은 소개항주 시 제공해 변화에 따라 승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임병중 쾌속정 예상분석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틸트각을 0.5도 조정하면 모터는 수면으로부터 2mm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전 날과 틸트각이 달라진다면 경기력 변화를 체크할 가치는 충분하다"며 "모터 기력이 달라지는데 있어 틸트각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으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만큼 선수가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농구



김종규, 강상재

'DB 산성' 강상재-김종규 동반 출격 또 통했다

강상재 군 전역 후 점차 호흡 향상  
제공권 상위 이끌며 PO 경쟁 앞장

원주 DB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21승26패로 6위를 달리고 있다. 7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7위 대구 한국가스공사(19승25패)와 8위 창원 LG(19승26패)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정규리그 막판까지 치열한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DB의 경기력은 그다지 좋지 않다. 14일 전주 KCC와 원정경기에서도 3쿼터 막판 승기를 잡고도 4쿼터 초반 밀리면서 시소게임 끝에 73-71로 간신히 이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선수들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 승부처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KCC전에서 위기의 순간 DB 벤치는 김종규와 강상재를 동시에 투입해 높이를 보강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 작전이 제대로

통했다. 김종규와 강상재의 동반 출전으로 높이가 확실히 향상됐고, KCC의 골밑 공략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 둘은 4쿼터에 득점이 없었지만, 리바운드 등 제공권의 우위를 이끌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강한 수비를 표방하는 이른바 'DB산성'이 오랜만에 재건됐다. 이번 시즌 개막 이전부터 김종규와 강상재의 만남에는 많은 눈길이 쏠렸다. 김종규는 센터지만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하는 플레이보다 페이스-업에 강한 포워드형 선수다. 강상재는 DB로 이적하기 전 파워포워드로 활약했다. 비슷한 플레이 성향을 지녀 공존 여부가 관심사였다. 강상재가 군복무를 마치고 합류한 지난해 12월부터 둘은 함께 뛰었지만, 아무래도 실전에서 호흡을 맞추다보니 시너지효과를 내진 못했다. DB로선 외국인선수들이 좀더 살아나야 하지만, 잔여경기가 적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김종규와 강상재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다. 새로운 DB산성의 듀오 김종규와 강상재가 한결 향상된 호흡으로 팀의 6강 PO 진출에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iyong@dona.com

'MVP 본색' 김한별, BNK 첫 PO행 부탁해

휴식이 이후 첫 경기서 24점 폭발  
4경기 남기고 4위 1.5경기차 추격

부산 BNK 썸은 2019년 창단한 뒤 첫 플레이오프(PO) 진출을 노리고 있다.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에서 15일 현재 9승17패로 4위 용인 삼성생명(11승16패)에 1.5경기차 뒤진 5위다. 17일 삼성생명과 맞대결을 포함한 잔여 4경기는 매번 결승전과 다름없다. 진안, 안해지, 이소희 등 BNK 주축선수들의 큰 경기 경험은 전무하다. 전신인 구리 KDB생명 시절인 2012~2013시즌부터 단 한 번도 '별농구'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탓이다. 2020~2021시즌 삼성생명 소속으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앞장섰던 베테랑 김한별(36)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한별은 팀의 PO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경기당 21.5점·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연승을 이끌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였던 14일

부천 하나원큐와 원정에서 올 시즌 개인 최다인 24점을 폭발했다. 2020~2021시즌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의 위용을 되찾은 점은 BNK로선 매우 든든하다. 시즌 초반에는 팀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BNK 박정은 감독이 "이름으로 농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김한별은 승부처에서 박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공격 옵션이다. 혼자 모든 짐을 떠안을 필요도 없었었다. 진안이 골밑, 이소희가 외곽에서 힘을 보낸 덕분에 그만큼 부담을 덜었다. 박 감독이 그토록 바랐던 "젊은 선수들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역할"에도 적극적이다. 첫 PO행을 노리는 BNK로선 그만큼 김한별이 든든할 수밖에 없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재범 기자 bong82@donga.com